

“광주시 2개구 지정 건의에 국토부가 5개구 지정대상 묶어”

이용섭 광주시장 SNS 부동산 조정지역 팩트체크 왜?

시청 관련부서 항의전화 빗발 “부동산 투기 우려 없는 자치구 경제활동 불편...해제 건의할 것”

광주시가 최근 정부에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역민의 이해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역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광주 5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건의해 확정했다는 설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관련부서 등엔 연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 2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유지인가?’란 제목의 일문일답식 팩트체크를 올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팩트체크에서 이 시장은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광주시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법령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들의 이해를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 63조2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말 광주시는 가격등급과 외부 투기세력 우려가 큰 두 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5개구 모두 법적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주 전역을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격등급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집값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에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정의로운 도시라 할 수 없다”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우리시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달 국토교통부 검토 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다음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다음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와 서구, 북구에 대해 국토부에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구 아파트 건설 현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대선 레이스 경선 후보들 합종연횡 이뤄질까

여론조사 이 지사 과반 못넘어 후발 주자들 견제성 협공 본격화 이재명측 “정치공학적인 접근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 지사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위 이하 후보 간에 단계적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4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6명으로 압축하게 돼 있다. 이후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1위, 2위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후보군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양승조 총남지사, 추미애 전 법무 장관 등 8~9명 정도다.

이 지사 측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2년 대선 경선에서 56.5%, 2017년 대선 경선에서 57.0%를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 후보가 됐다. 그러나 후보 간 연합

경선이 구축되고 이 지사를 향한 견제 흐름이 본격화하면 이 지사의 과반 득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PNR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가 33.8%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에 못미쳤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13.5%), 정세균 전 총리(7.2%), 박용진 의원(3.4%), 이광재 의원(2.3%), 양승조 지사(1.6%), 김두관 의원(1.1%) 순으로, 2위 이하 주자들의 지지율 합산은 29.1%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발표된 NB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가 33%로 과반이 안 났고, 이 전 대표(11%), 정 전 총리(4%), 김부겸 총리(2%) 등 순이었다.

1차 분기점은 예비경선 직후, 2차 분기점은 본경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위 주자들이 과거 이 지사가 친분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을 연결고리로 삼아 반(反)이재명 전선으로 세 규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반(反) 기본시리즈 전선 등 정책 공조를 통해 정치적 연대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합종연횡 양상이 나타나더라도 ‘친이재명’ 후

보들의 ‘역규함’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지사에겐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후보들이 원팀으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합종연횡과 같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이날 이 지사를 직격하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성 협공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백신 파트너십 성과를 평가하며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고 러시아 백신 도입 등을 주장하며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제발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화는 그만하자”고 적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을 주장했던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 지사를 겨냥, “박스권에 갇힌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과연 대세론이기는 합니까?”라며 “여론조사상 당내 1위 후보라고 부자 몸조심하듯 안전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호남구에 통했나... 지지율 20% 넘어서

리얼미터 조사...9.4%포인트 올라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 구애’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17~18일, 20~21일) 주간 집계 결과, 호남권(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1.9%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9.4%포인트 오른 수치다. 불모지로 여겨졌던 호남에서 정당 지지도가 20%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 0.5%포인트 오른 35.9%를 기록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지역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곳은 호남권 뿐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 전후로 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이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고, 정운천·성일중 의원이 5·18유족회 초청으로 추모제에 참석한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7%,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4.0%를 기록했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0.6%에 그쳤다. 무당층은 14.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을 혼용했으며,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983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010명 응답을 완료해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갈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